



## 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대응

정원석 연구위원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Brexit)를 결의한 이후 실질적인 유럽연합 탈퇴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 영국 보험산업의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227억 파운드의 35%인 74억 파운드가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영국은 이러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체제에서 설계된 규제체계를 영국의 규제체계로 흡수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및 EU 금융회사들이 브렉시트 이전과 같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음. 이러한 대응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이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로 판단됨. 우리나라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역시 이러한 영국정부의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지역 투자에 참고해야 할 것임

### ■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를 결의하여 2019년 3월 탈퇴 예정임

-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EU에 탈퇴의사를 전달하고 이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EU에서 탈퇴하게 됨
  - 현재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탈퇴 이후 관계 정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9년 3월에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게 됨<sup>1)</sup>
- 영국의 EU 탈퇴 협상은 2017년 6월 시작되었으며, 2018년 10월 협상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및 보험시장 변화에 대해 영국 금융당국(FCA)이 우려하는 부분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국 금융당국(FCA)은 유연한 전환(Smooth Transition)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감독당국인 FCA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그리고 영국정부가 함께 안정적인 금융

1)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헌법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 있음. 일단 회원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유럽 이사회에 통보하면, 탈퇴 신청국과 유럽연합 간의 탈퇴 협상이 시작되며 향후 유럽연합과의 외교 관계 등을 설정하게 됨

- 시장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최근 FCA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이슈와 대응 방향을 발표하였음<sup>2)</sup>

■ 브렉시트로 인해 법률 및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금융·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및 지급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규제절벽위험(Cliff Edge Risk)에 직면할 수 있음<sup>3)</sup>

- 런던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227억 파운드 가운데 EU지역에서 발생한 수입보험료는 50억 파운드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22.4%임
  - 특히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사의 경우 EU지역 수입보험료가 23억 파운드(34.6%)로 EU지역에서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두드러졌음
- IUA(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는 브렉시트로 인해 73.8억 파운드 규모의 수입보험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음
-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는 영국에서 약 1,000만 명, 유럽연합지역 3,800만 명의 보험계약자가 브렉시트로 인한 규제절벽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파생상품은 26조 파운드 규모의 계약이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영국에 본사와 지사를 둔 보험회사의 지역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파운드, %)

| 구분   | 본사     |      | 지사    |      | 계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영국   | 87.00  | 54.3 | 20.13 | 30.2 | 107.13 | 47.2 |
| 북미   | 22.84  | 14.2 | 6.79  | 10.2 | 29.63  | 13.0 |
| 남미   | 6.13   | 3.8  | 4.9   | 7.3  | 11.03  | 4.9  |
| EU   | 27.75  | 17.3 | 23.06 | 34.6 | 50.81  | 22.4 |
| 아시아  | 11.67  | 7.3  | 5.66  | 8.5  | 17.33  | 7.6  |
| 아프리카 | 2.91   | 1.8  | 0.5   | 0.7  | 3.41   | 1.5  |
| 호주   | 2.04   | 1.3  | 5.69  | 8.5  | 7.73   | 3.4  |
| 계    | 160.34 | 100  | 66.73 | 100  | 227.07 | 100  |

자료: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London Company Market Statistics Report 2016 자료를 재구성

■ 특히 보험산업은 영국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브렉시트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sup>4)</sup>

- 영국 보험 및 연금산업이 한 해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는 400억 파운드로 이는 영국 국내 총생산 18,371억 파운드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FCA(2018. 7. 19), "The FCA's approach to Brexit: our preparations and our vision for the future"

3) AFME(2018), *Brexit: Key Cliff edge risks in wholesale financial services*

4) ABI(2017. 6. 26), "Thriving insurance sector benefits the whole UK economy"

- 보험산업 종사자 1인당 연간 생산성은 135,000~150,000파운드로 건설업 75,000파운드, 제조업 65,000파운드의 2배 수준임
    - 특히 보험산업 종사자 309,000명 중 86%가 정규직(Full-time)일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전체 영국 산업의 정규직(Full-time) 비율 67%에 비해 19%p 높은 수준임
  - 브렉시트로 영국의 보험산업이 위축될 경우 영국 경제와 일자리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제도 및 금융관련 법률 등의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금융관련 제도 및 규제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EU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는 금융관련 법안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법안들로 전환되도록 추진 중임
  - 규제와 관련해서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이전 제도 하에서 영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허가사항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연구 역시 진행 중임
  - 보험 및 금융 계약유지 등과 관련한 문제는 영국과 EU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므로 27개의 EU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음
- 브렉시트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EU 국적 금융회사와 펀드들이 일정기간 동안 추가적인 절차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제도(Temporary Permissions Regime)임
- 금년 4월 기준으로 8,500개의 금융서비스 회사가 영국에서 그리고 6,000여 개의 영국 금융회사가 EU지역에서 EU기반 패스포트(Passport)로 영업 중임
    - 브렉시트 이후 이들 회사들의 영구적인 영업이 가능한 지위를 얻을 때까지 고객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할 방침임
  - 이러한 제도들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임
- 이러한 방향성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EU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 있음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국경 간 거래 활성화, 일관된 글로벌 스탠더드 유지,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 능력 있는 인적자원 유치 등을 강조함
    - 이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금융·보험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영국과 EU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영국이 준비하고 있는 브렉시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EU국가와의 협력강화, 금융회사 임시허가제도 등은 안정적인 브렉시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보험·금융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런던 금융시장의 변화는 세계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영국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유연한 전환(Smooth Transition)은 여타 유럽 국가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측의 브렉시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kiri](#)